

문명순 전 교장, 모교에 발전기금 3000만원 기부

전주교육대학교는 동문인 전주사범학교 본과 11회 출신 문명순 전 교장이 졸업 65주년을 맞아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문명순 전 교장은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윤리를 성장과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오랜 소망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발전기금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대학 향상을 위해 써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병준 총장은 “동문의 모교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예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받아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새일센터, 보건의료서비스전문가 양성 협력 회의

전북새일센터(원장 전정희)는 지난 9일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은 응급간호, 환자수첩관리, 보건행정사무, 디지털업무활용 등을 토대로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 취득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취업대비, 직무소양 등 총 120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일자리협력망 회의에는 △대지인병원 △늘푸른집 △일이산한방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등 관련분야 대표가 참석했다.

전정희 원장은 “보건의료관련분야의 실무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새일센터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대상 취업지원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청렴실천 결의대회 · 교육 실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승)은 최근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행정실장, 청·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는 학교장 등 124명이 참석해 고창교育의 반복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모두가 함께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 △청렴 서약식 △청렴실천 결의 퍼포먼스 등 결의대회를 통해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청렴의 가치를 유포하고 즐겁게 마음에 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유효승 교육장은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다시 한번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방119안전체험관-임실농협, 고향사랑기부 흥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119안전체험관(관장 김병철)임직원은 지난 9일 NH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신)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흥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등장 캠페인은 기부를 통한 농업·농촌 생활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홍보의 일환으로 임실군의 지역경제 성장을 열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좋은 취지와 혜택에 공감한 소방119안전체험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진신 지부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소방119안전체험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임실을 대표하는 딥티풀 흥보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병철 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119안전체험관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주제를 통해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장을 하게 되어 기쁘고 전국을 대표하는 안전놀이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강호항공고, 전북기능경기대회 ‘종합 1위’

전주공고 등 9개 경기장서 도내 15개교 334개 직종 252명 참가 열전

‘제54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강호항공고가 종합 1위인 대상을 수상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번 대회는 전주공고 등 9개 경기장에서 5일간 도내 15개교 334개 직종, 252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응접분야에서 금메달(3학년 윤승현), 은메달(2학년 현승원), 동메달(2학년 이승호)을, 냉동기술 분야에서 금메달(3학년 김동건), 은메달(3학년 최정우), 동메달(3학년 이상재)을, 관공철골구조물분야에서 금메달(3학년 김인수), 은메달(3학년 최길영), 동메달(2학년 김인우), 장려상(2학년 박강신)을, 전기기기분야에서 금메달(3학년 고도윤), 은메달(2학년 성평화), 동메달(2학년 김성진)을, 배관분야에서 은메달(3학년 이한빈), 동메달(2학년 문선경)을, 기계설계분야에서 은메달(3학년 김경록)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

앞서 강호항공고는 항공장비직종, 응접직종에서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김동욱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응접직종), 김정민 학생



은 은메달(항공장비직종)을 획득했다.

염택선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기능경상과 기술 역량을 높이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제5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첫 모내기 영농현장 격려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9일 순창 지역에서 첫 모내기가 시작된 풍선면 도치마을 박춘원(71)씨 영농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단순히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직접 모판을 나르고 이앙기를 조작까지 참여하며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땀을 흘리며 올해의 풍년농사를 간절히 기원했다.

이날 모내기한 해답쌀은 밥맛이 우수한 조생종으로, 농촌 진흥형에 의해 최고 품질의 쌀로 선정되었으며, 추석 선인 8월 중순경에 수확할 예정이다.

이을리, 군은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에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되어 6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제일고, 전북기능경기대회 요리부문 입상

남원제일고등학교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서 개최된 2024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요리부문에서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4위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방학 및 방학 후 시간을 활용해 총 5명의 학생이 실력을 길러 경연에 참가했었다.

남원제일고는 지난 6년간 전북 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요리부문에서 한번도 빠짐없이 모두 수상을 이루는 기록을 이루었으며, 5명으로 구성된 남원제일고 참가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방학 및 방학후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제시된 과제를 잘 해석하고 레시피 과정에 따라 준비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그 밖에도 남원제일고 조리과 선생님들 열정적인 요리지도 아래 현재 기능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국제요리경연대회,



KWFC 요리아카데미 풍드팜파인 입상 등 다양한 대회에서 6연속 메달을 수상하는 위엄을 보이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 교육과 미래” 아름다운공동체 개소식

지난 9일 ‘아름다운공동체’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두재군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자, 학부모, 시민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사)아름다운공동체는 2019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수여하며 교육에 헌신해 온 교육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두재군 위원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전북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공동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선진지 정읍, 광주 요원들에 사업 공유

정읍시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배우기 위해 광주광역시 응급관리요원들이 정읍을 찾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날(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 광역지원기관(사회서비스원)과 광angu 등 5개 구의 수행기관 응급관리요원 18명이 시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이날 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우수사례 발표 △노인일자리사업 활용한 응급장비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2023년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응급 장비를 기존 800대에서 1,400대까지 확대했다. 또한 타 시·군과 차별적으로 지역센터 2개소(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 4명을 배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정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견학 온 응급관리요원은 “지난해 정읍 응급관리요원의 응급상황 대응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견학을 오게 됐다. 직접 확인해보니 확실히 우수한 차별점이 있다”며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안전에 매 순간 집중하고 신속



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 미감지 등에 대한 확인과, 응급호출에 따른 출동으로 누구보다 고생하는 응급관리요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해 안전이 유품인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체육회, 주말체육학교 운영 · 참가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가 2024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하기에 앞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오는 15일 11시부터 26일 17시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일명 토요스포츠)는 지난 2014년도부터 대한체육회 혁신사업 중 하나로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서 주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총 30주간 주말을 이용, 2시간씩 초·중·고 학생 및 동연령대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주말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안·밖·스포츠 활성화 및 학생(동연령대청소년 포함)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청소년 1인 1종목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농어촌공,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부안군은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김원중 지사장과 임직원 36명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7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임직원 41명이 참여해 410만원을 기부, 올해에도 부안 빌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많은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올해 고령농업인의 영농을 향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